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호 [루게 제23349호] 주체100 (2011)년 2월 1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끓이는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서시어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중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부창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대장들이던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녀성 5중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녀성독창과 방창 《매혹과 호모》, 재담 《귀담아주세요》, 북과 노래 《혼련장의 실참은 종자》, 선동곡 《진정을 바쳐갈 때》, 녀성 3중창 《일심단결 날리리》, 시와 이야기 《절대로 습관되지 말자》, 남성독창 《단숨에》, 녀성 2중창과 기타병창 《공격전이다》, 시와 합창 《우리의 행군길》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수하고야말 인민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또한 전호가와 훈련장, 건설장들에서 전투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군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리워키던 그 열정,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항일유격대식에 예술선전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단체의 위력을 뚜렷이 파시하였다.

관람자들은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불타는 맹세를 안고 힘차게 터치는 혁명적예술인들의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며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무적의 대으로, 사상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나팔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였으며 일련단심장군님을 따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몫 다 바쳐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 백두의 혁명정신도 도도히 맥박치고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품도, 보람찬 군무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함대 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라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공연을 통하여 투철한 수령관과 혁명관을 지니고 량만과 회열에 넘쳐 억세계 전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을 잘 펼쳐보였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세 문화창조자들인 그들의 혁명적인 창조활동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예술선전대의 전체 예술인들은 현지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여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가슴들먹이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부대의 전투력강화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 베이징 신위통신산업집단공사 리사장 겸 총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총재가 선물을 올리였다. 제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 베이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물을 올리는 선물을 왕정 리사장 겸 총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절기모임 진행

만수대창작사,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만수대창작사,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졸업원들의 절기모임이 각각 진행되었다.

만수대창작사 졸업원절기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자, 졸업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모임에서는 사장 주수용의 보고에 이어 부사장 김성민, 단장인 김명운, 박장준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미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절기모임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조선화와 유화의 고유한 특성을 더욱 살려나가며 보석화와 서예, 수예, 도자공예, 금속공예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의 미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창작자들이 당의 주체적미술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졸업원절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김철현의 보고에 이어 원장 허광춘, 실장들인 박정철, 홍희경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분원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현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이미 개발된 연구성과들을 실현에 적극 도입하며 새로운 첨단생물공학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수하고야말 인민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또한 전호가와 훈련장, 건설장들에서 전투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군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리워키던 그 열정,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항일유격대식에 예술선전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단체의 위력을 뚜렷이 파시하였다.

관람자들은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불타는 맹세를 안고 힘차게 터치는 혁명적예술인들의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며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무적의 대으로, 사상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나팔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였으며 일련단심장군님을 따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몫 다 바쳐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 백두의 혁명정신도 도도히 맥박치고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품도, 보람찬 군무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함대 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라고 감사를 주시였다.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 2. 16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스웨리에에서는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로씨야에서는 우리 나라 수공예품전시회개막식, 영화감상회들이 1월 14일과 18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장군들과 수공예품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스웨리에주체사상연구소, 로씨야 라잔주행정부, 프리우프회사의 인사들과 중군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개신문》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스웨리에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베네수엘라에서는 집회, 에티오피아에서는 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타이에서는 강연회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베네수엘라공산당,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아라다지부소조와 리데라지부소조,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 타이를 위한 당, 타이 라자바트 프라나콘총합대학의 인사들과 중군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조선의 대담》과 《유구한 력사를 빛나는 조선》이 상영되었다.

베네수엘라공산당 조직비서 베르베도 아브레우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축사를 드리며 그이께서 건강하시어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승리로 명도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온 세계가 보고있듯이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령도 밑에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도발행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낼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아라다지부소조 책임자 아라야와 리데라지부소조 책임자 바울로스는

김정일 령도자 각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책적인 령도조선을 불멸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들을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불리워키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고 조선인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시였다. 최근년간 조선에서 위대한 변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일심단결의 힘이 있기때문이라고 격찬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송치트 폴팠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일찌기 김정일주체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정책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정일주체의 당으로,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들어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에서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김철소서

1월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수행

내달리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김철로동계급은 또다시 신안같이 일해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 올해 공업생산계획이 대충을 불리워키려는 확신적정기사업들을 앞장서서 생산에 앞장서서 생산에서 결린 과리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속에 기업소에 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났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물적으로 부르는 편지를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김철의 로동계급은 생

산공정의 현대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올해 첫달생산계획수행을 위한 물적전력을 힘있게 벌리었다.

혁신의 불길은 원료보장부문에서부터 세차게 타올랐다.

관수송사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의 앞공정을 담당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하루 수천t의 정광을 수송하는 등 눈부신 수송성과를 올렸다.

정광공급 1, 2직장의 전투원들도 설비판리의 원바람을 일으키며 불굴의 정진력으로 이익하게 투쟁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많은 량의 정광을 보장하였다.

동력 1직장에서는 변전설비들에 대한 점검과 판리를 짜고들고 동력선보수작업들을 예견성있게 앞질러해나감으로써 철강제생산에 필요한 동력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용광로직장에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대표회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쇠물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은 그 우월성이 확증된 앞선 로조작방법들을 더욱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련관공정들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원료장입과 소비의 균형을 잘 맞추어 련일 쇠물목포를 쏟아내었다. 하여 련합기업소의 1월 철강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물적투쟁을 호소한 김철의 로동계급이 첫달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올해 대고조속도의 밝은 전망을 확고히 내다볼수 있게 되었다.

지금 김철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높이 세운 올해 철강제생산계획을 기어이 앞당겨 완수할 기세도높이 김철의 신심,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을 힘있게 떨치며 생산물적투쟁을 과감히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주참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유색금속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단천제련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당의 농업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재령별안의 농촌들에서

우리는 농업전선을 지켜선 전투원들이다

새해공공사업의 전후적과업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진에 펼쳐나선 신천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집중공력이 내달리고있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협동별은 세차게 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된 혁명가의 품모는 모든 령과 지혜를 다 바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날 아침, 거름을 산더미처럼 실은 자동차들과 트랙터들을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들이 협동별로 향한 도로들을 짙게 메우며 달려가고있다. 전례없던 이 광경은 이튿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편이 펼쳐졌다. 운전대물들이자른 자동차운전자들과 트랙터도 운전수들, 거름집통을 들고 달리는 사람들모두의 가슴은 울헤에 기어이 풍요한 가

신천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을을 안아올라려는 결의로 세차게 높이되고있다.

본래있던 새해의 첫 공세였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전투원들이다. 군안의 어느 농장, 어느 작업반에 가보아도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런 드높은 책임감을 안고 불꽃 튀는 전투를 벌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든든한 배심을 안고 농사차비작업을 통이 크게 펼쳤다.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비롯한 농사차비물 2월 중순전까지 100% 끝내는것, 이것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스스로 내세운 투쟁목표였다.

추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매일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실어내야 하는 전투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의 첫 전진결에서 누구나 다 혁신자가 될 신심을 내뿜었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방송선전에서 힘있게 올라서는 공공사업의 호소가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거름을 산더미처럼 실은 트랙터들을 비롯한 운반수단들과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름집통을 지고 달리는 농장별은 싸우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한겨울의 추위는 이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온 대지를 명멸 열었다. 하지만 거름실어내기에 펼쳐나선 사람들의 이마에서는 땀이 마를새 없이 흘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열의로 포진마다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뉘었다. 땅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을 안고 이르는 새해전투에 진입하여 첫 3일동안만도 5만여의 거름을 생산하고 2만여의 거름을 포진에 실어냈다.

새결협동농장에서 거름실어내기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하루종일 웃음을 벗어제끼고 일손을 다그치고있던 농장원들이 어지간히 감속이 되었다. 그때였다. 방송선전에서 《승리의 길》의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얼마후 노래는

관로의 자들

합창으로 번져져 온 벌을 진감시켰다.

《승리를 굳게 믿고 살며 투쟁할 때 행복의 만리가 온다. 농업전선을 지켜선 전투원들! 함께는 거름실어내기를 위해 노력해나간다.》

농장일군의 이 호소에 농장원들이 신심에 넘쳐 호응해나섰다. 용기백배하여 분발해나선 이들은 거름실어내기를 다그쳐 그날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그 기세로 이들은 첫 열흘동안의 거름생산과 실어내기계획을 5일동안에 해제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틀만이나지 않아, 먼 포진부터 거름실어내기를 진행하고 있는 백석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하루종일 거름집통을 지고 달려나와 힘겨웠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잘 알기에 헌신의 땀이 아낌없이 비쳤다.

모든 협동농장들의 거름실어내기를 위한 헌신자들의 대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들의 눈앞에는 광속이 없다고 하면서 흠보산비료생산에

관로의 자들

박차를 가하고있는 청산협동농장의 농장원들과 구운협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건산협동농장 청년분조장 최영철동무를 비롯한 청년들도 있었다.

원안, 복우, 송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백령산포탄 자체준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을 때 협동농장 리철수동무를 비롯한 운전수들은 트랙터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거름실어내기과제를 매일 넘쳐 수행하였다. 군조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더 많은 트랙터부속품과 중소농기구를 생산하기 위하여 창조적 구슬땀을 바쳤다.

그야말로 온 군이 하나의 전진이었다. 군에서는 1월중에서 수십만의 거름을 생산하였으며 군적인 거름실어내기계획의 많은 몫을 해제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전투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울헤에 풍요한 가슴을 안아올라려는 결의로 대고조의 기상을 더 높이 펼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들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될 때

안악군 엄곡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안악군 엄곡협동농장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높은 농사차비실적을 기록하였다. 이 성과는 공동농사실의 전후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들파구를 열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앞에서 그리고 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과업을 받아안은 농장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끓었다. 농장일군들모두가 울헤 농사를 기어이 잘 짓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려고 애를 쓰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지난 시기에 소구적으로 그 강령을 파헤어 전진에 내곤 하였는데 효과를 적지 않게 보았다.

일군들은 작업반에서 일부로력으로 과수집과 전거름을 리용한 거름생산에 계속하는 한편 기본로력은 물결바닥의 강령을 파헤어 포진으로 실어내도록 하였다. 이때 일군들은 여러 구역에 령령을 분산배치하여 동시에 강령과기름을 진행하게 하였다.

농장일군들이 높은 거름생산목표를 내세운다는 까닭이 있었다. 지난해 농사정황을 분석하면서 일군들이 찾은 교훈이 있었었던것이다. 그것은 지난해처럼 불리한 날씨

안악군 엄곡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포진에 거름을 많이 내어 지력을 높이면 그만큼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거름원천이 부족한 농장의 실정에서 높은 거름생산목표를 달성한다는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과서는 계획된 거름생산량을 하기도 어려운데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한다는 다른 열농동정들이 처질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조직사업을 잘하고 대량의 열을 불리얼킨다면 능히 해낼수 있다는것이 농장일군들의 생각이였다.

성공의 예비는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내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때 일군들이 주목을 들린 곳은 물결이였다.

논이 기본로력으로 되어있는 농장에는 크고작은 물결들이 많았다. 오래전부터 리용하는 그 물결바닥에 쌓인 강령은 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것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지난 시기에 소구적으로 그 강령을 파헤어 전진에 내곤 하였는데 효과를 적지 않게 보았다.

일군들은 작업반에서 일부로력으로 과수집과 전거름을 리용한 거름생산에 계속하는 한편 기본로력은 물결바닥의 강령을 파헤어 포진으로 실어내도록 하였다. 이때 일군들은 여러 구역에 령령을 분산배치하여 동시에 강령과기름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데는 타산이 있었다. 한곳에서 강령을 파내면 전후적과업을 하기에는 좋겠지만 좁은 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것만큼 작업하기에 불편할수 있었다. 그러나 령령을 분산적으로 배치하면 작업구간이 넓어지고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마음먹은대로 움직일수 있어 실적으로 그만큼 높일수 있기때문이었다. 이러한 타산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작업구간이 비교적 넓은 제10작업반구역에는 로력을 적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령령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다.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따라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강령을 파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어느날이었다. 한 일군은 어느 작업반의 강령운반실적이 떨어지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모나 트랙터가 고장났는데 몇시간은 실히 걸려야 수리할수 있었다. 그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절용에 강령을 담아지고 포진으로 달려갔다. 일군의 이신작업은 얼마마, 백마의 말보다 더 큰 강령력을 가지고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대동은 분발해서 자 작업실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

농장의 경험은 일군들이 치밀한 조직사업과 이신작업으로 들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문 길 수

현지도도 | 땀은 오늘에, 락은 래일에!

◎ 재령군 래림협동농장 제10작업반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재령군 래림협동농장 제10작업반이다.

지금 여기서는 공공사업의 피땀은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바닥 강령을 파헤어 포진으로 실어내는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나운 눈바람이 작업장의 모퉁이를 풍풍 열구어버릴듯이 가슴을 부린다.

그러나 곳곳에는 승리의 상징인 붉은 기발들이 세차게 더덕고 질풍은 강령을 파고 나르는 전투가 시간아 갈수록 더욱 고조를 이룬다.

현장속보판에는 이런 글바이 새겨진다.

《땀은 오늘에, 락은 래일에!》

가들의 뜨거운 마음과 의지를 그대로 담은 글바를 보며 더욱 신심드높이 일손을 다

그지는 농장원들이다. 방송선전에서 울려나오는 《승리의 길》의 노래가 전투장을 들끓게하며 농장원들의 심장을 더욱 끓게 해준다.

힘있는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 농장원들이 합마를 휘둘러 언 강령을 뿜뿜 뿜어낸다.

나이숙한 농장원이 능숙하게 정대를 옮겨대기 바쁘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내뿜 청년이 합마를 휘둘러댄다.

그저 앞을갈라 갈라지듯 굽은 굽이 쪽 하면서 끊임없이 강령이 제자리에 다르구만.

연해연방 감안이 러진다. 다 른쪽에서는 파낸 강령덩어리들을 포진으로 실어내는 전투가 더욱 세차게 벌어진다.

트랙터가 강령덩어리를 쌓아 올리는 한가운데로 속 들어선다. 농장원들이 일제히 강령을 실는다. 10분도 못되어 트랙터의 적재함이 넘쳐나도록 강령이 실린다.

그저 농장원들이 자기들의

모판자재준비를 빈틈없이

재령군 금산협동농장에서

농사차비전투로 돌풍을 제령군 금산협동농장의 울헤농사정황이 기대된다. 그 어느 포진에나 클적지 않은 거름덩어리들이 무드기 쌓인것을 보기도 그것을 짐작할수 있다. 더우기 주목할만 한것은 모판자재준비를 한가지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갖추어놓은것이다.

공공사업을 받아안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누구나 다 울헤농사를 본래있게 지을 줄은 각오를 안고 농사차비전투에 한사발같이 펼쳐나섰다.

농장원들의 열의가 앙양될수록 농장일군들의 자각은 더욱 높아졌다.

정보량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농장일군들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만나 지난해 농사에 비추어보면서 방도를 모색하였다.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도 실정에 맞게 논벼재배방법을 바꾸는것만큼 모기르기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데 의견들이 합쳐졌다. 알곡증산의 예비의 하나라 바로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는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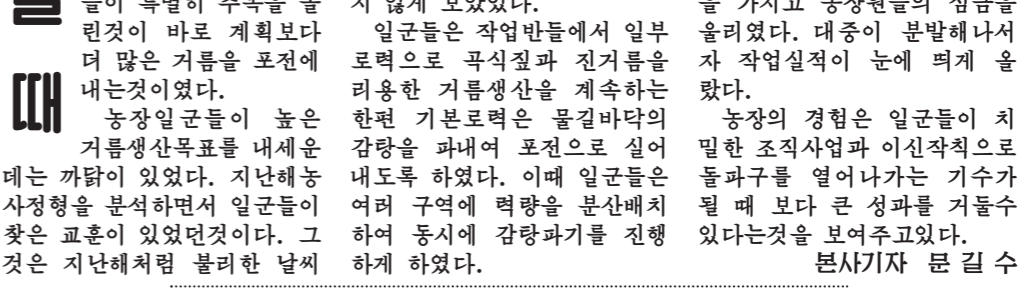
농장일군들은 이에 맞게 나

때, 말장을 비롯한 모판자재들을 빈틈없이 갖추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모든것이 부족했던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한 대고조간석건설자처럼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하게 돌진하는 자력갱생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공사업의 구질구질을 자자구구 새기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판자재들을 마련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제2작업반원들을 비롯하여 농장원들은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추운 날씨도 아랑곳없이 나뉘어기어 뜨거운 열정을 바치였다.

실하고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어 울헤농사를 잘 짓는 여기에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공지와 보람이 있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길이 있음을 잘 알고있기에.

그러하여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농장이라고 할수 없게 구운협과 모판운부시로는 물론 나뉘, 말장 등 모판자재들을 그르히 준비해놓았다.

본사기자



새해공공사업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농장원들을 고무한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이 요구하는 김책형의 일군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일군이 되자》를 발표하신 10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 90(2001)년 1월 31일 발표하신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풀으시어 충직한 혁명투사였던 김책형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일력으로 끝까지 받드는 참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도 우리에게 김책형지와 같은 충실한 일군이 필요 합니다.》

김책형의 일군, 이것은 오늘의 총공격전시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이 실현해나가는 장군님의 참된 혁명동지들이 지닐수 있는 값높은 초침이다.

지금 온 나라에는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후적호소에 비약과 혁신의 열풍으로 화답하는 총공세의 산물들이 세차게 울려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전진적인 결사전이다. 전방, 전후, 전민의 총천한 기세와 불굴의 의지가 힘있게 파시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지휘정원들인 일군들이 김책형의 실천가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단천지구공업총국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일군이 되자》의 구질구질을 다시금 되새기며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일으

키나갈 줄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이 요구하는 김책형의 일군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명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적전진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전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전진과 의리는 일군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이며 혁명가들사이에서 맺어지는 믿음과 사랑의 기초이다. 명도자의 견사들사이의 관계는 그 어떤 원칙에 따르는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상의지적이며 의리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레야 자기 명도자에 대한 전사들의 충실성이 그 어떤 총애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령군현치지도로 수놓아져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실록을 통하여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심심하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의 정선적이 어떻게 총폭발되고 이 땅위에 어떤 불멸의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가슴벅차게 느낀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수령님을 신념과 의리로 따르며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들을 결사관철하여 구적지처럼 살며 투쟁하는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참된 혁명동지로 삶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글자의 연, 어떤 빛 대화물생산기계의 전진된 우리 단천지구공업총국아래 평안, 평강, 기업소의 일군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김책형의 일군으로 여세게 준비해나가고있다. 대동청년영웅평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령군현치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마그네트코일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여 장군님께서 커다란 기쁨을 드린 김책형의 일군들이 격동시키고 있다.

평양양말공장 녀자양말직장을 찾아서

우리는 얼마전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울헤공공사업들을 높이 받들고 중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평양양말공장 녀자양말직장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공장주내에 들어서니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평을 가슴에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미더운 로동계급의 투쟁소식을 전하여주는 속보판들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졌다.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구내를 돌아보면 우리는 《녀자양말직장》이라는 큼직한 간판이 걸려져있는 현관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최첨단설비들이 즐비한 현장을 딱 쳐우고 현대화의 동음을 울려가고있는 벅찬 현실이 직장에 첫발을 들여놓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녀성들에게 걸출한 양말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시려고 공장에 으뜸가는 정장화하고 더 좋은 생산장비를 들여나갔었다. 그러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향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현해나가는 김책형의 참된 일군으로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하겠다. 단천지구공업총국 당위원회 책임비서 석 덕 환

르자 양말기계들이 실용구리들을 저절로 술을 흘리며 돌아갔다. 눈감박한 사이에 골짜기엔 양말들이 분출구로 뿜어져 양말기계로 수직설비씩 척척 걸려지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 하였다.

제적정장을 거친 양말들이 다음공정인 가공공정에 넘어가 보초기대에 무드기 쌓여 지는데 기대공쳐너 작업단추를 누르자마자 순식간에 밀린하게 완성된 양말들이 줄줄이 쏟아져나왔다.

현대화된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어내는 기계공처녀들의 자랑스런 모습에서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도 뜨겁게 호소하며 대오의 앞장에 선 초급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도 우리는 직장로동계급의 뜨거운 애국심을 읽을수 있었다.

포장기를 통해 일대까지 포장된 양말들이 자함에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혁신자들인 김남철, 송호준, 윤선희동무들의 열광마다에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총속에 일터선 평양양말공장 녀자양말직장을 돌아보며 우리는 총공격전의 해인 울헤에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릴것이라는것을 확신하였다.

박 유 정

덮어버릴수 없는 일제의 《통감》 통치죄악

1906년 2월 1일은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잔악한 식민지통치기인 《통감부》를 설치한 날이다. 이때부터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그 류체를 찾아볼수 없는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하여 우리 인민은 수십 년동안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가 날강도적인 수법으로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한데 이어 우리 나라에 악독한 식민지통치기인 《통감부》를 설치한 데로써 1905년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반목하게 유린하고 우리 민족에게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세력은 과거 범죄역사를 외면, 미화하고 정당화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그 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책정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역사는 외곡할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우리 나라에 대한 과거 일제의 《통감》 통치는 역사에 가장 악독한 범죄행위로 남아있다. 일제의 《통감부》설치배경과 《통감》 통치의 내막이 그것을 낱알이 까뻐쳐주고있다.

지난 세기 초엽 이미전부터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안을 구상하고있던 일제는 1904년 을사늑약을 도발한 후 그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교활한 일제는 저들의 침략적책동을 가리키기 위하여 처음에는 조선을 대한 그 무슨 《보호》의 필요성을 떠들어댔다. 이것은 한갓 기만이었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잔악한 식민지통치기인 《통감부》를 발동하여 날조해냈다. 일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완전히 장악해냈다. 그후 일제는 식민지통치기인 《통감부》를 발동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내 불행 무도한 죄행도 감행하였다. 《정미7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통감》 통치의 침략성과 범죄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주었다.

일제의 《통감부》설치와 《통감》 통치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반목하게 유린한 도발적인 식민지죄악통치였다.

일제는 《통감》 통치를 강행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당시 일제의 《통감》은 이미전에 날조된 문서들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외교관계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킴이 있는 한편, 《통감부》령을 발표하여 조선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일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고있었다. 그야말로 《통감》은 조선에 대한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치 등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감》 통치강화를 위해 수많은 무력을 끌어들이어 우리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켰으며 리조봉건정부의 왕권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들은 왕권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이른바 《통감부》령 《칙령》으로 발표하도록 강요하여 일본경찰들이 왕궁과 국왕에 대한 《호위》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승인없이 조선사람들은 국왕을 만날수 없게 하였다. 이

조선인민의 총공격전에 나선다

당보, 군보, 청년보공동사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로씨야, 도이쉴란드, 단체인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메히코정당, 단체들은 성명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스런이 울헤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결집전환을 일으키라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지하였다.

《울헤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거창한 투쟁을 지지성원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조선의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당, 정부, 단체들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노선에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투쟁을 격려하고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무한것을 호소한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여 전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립장에 대한 언급도 밝혔다.

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로씨야에서 봉쇄로부터의 레닌그라드해방 67돐 기념

로씨야에서 지난 1월 27일 파초도이쉴란드강점자들의 봉쇄로부터의 레닌그라드완전해방 67돐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날 낮 12시-오후 2시까지에서는 시정행사와 시의회구성원들이 각종 시민들과 함께 베스카로브로지의 《어머니-조국》 기념비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시에서는 또한 수많은 각계 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고속도로건설 중국 강서성에서 제11차 5개년계획기간 1508km의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였다. 성에서는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총 길이를 5000km 이상에 달하게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기간 중정시에서 1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한편 하북성에서는 2015년까지 고속도로 총 길이를 6762km로 늘일 목표에 공사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공사 완공되면 석가장시를 중심으로 주변 성, 시들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이 형성되게 된다.

범아랍철도망형성계획 아랍나라들이 범아랍철도망을 형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최근 아랍국가연맹은 계획된 철도망이 만지역으로부터 북아프리카에 이르는것으로서 그 총연장길이 3만 3000km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량안전을 위한 조치

방글라데시정부가 최근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식량가격이 계속 오르므로는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앞으로 4개월동안 약 100만세대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한해동안에 쌀과 밀가격이 각각 32%, 49% 인상되었다.

본사기자

단 평 누구와의 《약속》인가

최근 일본방위상은 자국이 주변나라들과의 《방위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 무슨 《약속》에 따른것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이 주변나라들과의 《방위협력》관계를 강화하는것은 그 누구의 《요청》에 의한것이라는것이다. 소가 웃다가 무메미러질노릇이다.

도대체 누가 일본과의 방위협력관계강화를 《요청》했으며 또 일본이 누구와 《약속》을 했단 말인가. 일본방위상의 말대로 만일 요청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일것이고 약속도 역시 그들과 했을것이다.

그 《약속》이라는것도 뻔하다. 그것은 미국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칠때 대해 강조

방글라데시대통령 질루르 라흐만이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다그칠때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나라의 경제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독립 50년이 되는 2021년까지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공업과 건설, 에너지를 분야를 현대화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생활필수품가격을 안정시키고 부정부패현상을 없앴으므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탈리아에서 봉쇄로부터의 레닌그라드해방 67돐 기념

이탈리아에서 지난 1월 27일 파초도이쉴란드강점자들의 봉쇄로부터의 레닌그라드완전해방 67돐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날 낮 12시-오후 2시까지에서는 시정행사와 시의회구성원들이 각종 시민들과 함께 베스카로브로지의 《어머니-조국》 기념비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시에서는 또한 수많은 각계 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

이스라엘당국이 꾸드스의 알 아크사사원침범에 저항하는 등 건설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위협으로, 꾸드스를 유대화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이를 당장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1월에 있는 아이미에서 개최된 제22차 2000명의 사망자가 난것이다. 그다음으로 큰 자연재해는 로씨야에서 있는 연례로 5만 6000명의 사망자가 난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0년에 자연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는 2억 700만명에 달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109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2월에 있는 칠레지진으로 인한 인하여 적어도 29만 6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하였다.

반미시위와 집회

이라크의 나자프에서 최근 반미집회가 벌어졌다. 미국부대통령이 이라크를 행각하게 되는것을 계기로 진행된 집회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군의 이라크군정을 규탄하면서 침략무력을 하루빨리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지난 1월 27일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한 미국인이 3명의 파키스탄인을 총으로 쏘고 차로 깔아 죽이게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것과 관련하여 미군정부가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회의원에 대한 총격사건이 일으킨 파문

새해벽두부터 미국사회가 초상난 접이 되어 아우성치고있다. 지난 1월 8일 아리조나주에서 국회 하원 의원 기포즈를 겨냥하여 일어난 류혈적인 총격사건이 그 발단으로 되었다.

이날 한 백화점앞에서 열린 집회장에 뛰어들어 쏘아 죽이려 하는 범행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총기류에 대한 살인 범죄가 감행되고있는 것이 다름아닌 미국사회이다. 그래서 미국에 총기류범죄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호가 붙어나가고있다. 식당과 지하철도역, 거리와 식당, 교회당 등이 곳곳에서 총을 가지고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피비린 살포시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지

인형들감고에 확대

인형들감고에 확대 (HINI) 형틀감고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1월 22일 이 나라 보건성은 인형들감고에 걸려 앓고있던 4살 난 어린이가 또 목숨을 잃음으로써 경조하며 사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측은 십자표식은 총의 조종장치의 미치지 않는다고 아인보살하였다.

두더지 비호 해

브라질의 리오 데 제네이루에서 최근 두더지비호해가 확대되고있다. 두더지비호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로 지난 1월 23일 현재 사망자수는 785명으로 늘어났으며 400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총해자수는 190만명에 달한다.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와 빅토리아주에서 큰물피해가 계속되고있다.

큰물로 지난 1월 21일 현재 3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100만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경제손실액은 200억\$ (오스트랄리아달러)에 달한다.

본사기자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지난 1월 27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2일거의 지난 한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45만 4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보다 5만 1000명 더 늘어났것으로 된다.

또한 영국의 BBC방송회사가 지난 1월 26일 경영형편의 악화를 구실로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650명의 종업원들이 무리로 해고 당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지난 1월 20일 이 나라 통계국은 지난해 4.4분기 전국적으로 물가가 그 전분기 에 비해 2.3% 인상되었다.

특히 연료가격은 4.3% 비싸졌다.

반미시위와 집회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지난 1월 27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2일거의 지난 한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45만 4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보다 5만 1000명 더 늘어났것으로 된다.

또한 영국의 BBC방송회사가 지난 1월 26일 경영형편의 악화를 구실로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650명의 종업원들이 무리로 해고 당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지난 1월 20일 이 나라 통계국은 지난해 4.4분기 전국적으로 물가가 그 전분기 에 비해 2.3% 인상되었다.

특히 연료가격은 4.3% 비싸졌다.

인형들감고에 확대

인형들감고에 확대 (HINI) 형틀감고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1월 22일 이 나라 보건성은 인형들감고에 걸려 앓고있던 4살 난 어린이가 또 목숨을 잃음으로써 경조하며 사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측은 십자표식은 총의 조종장치의 미치지 않는다고 아인보살하였다.

두더지 비호 해

브라질의 리오 데 제네이루에서 최근 두더지비호해가 확대되고있다. 두더지비호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로 지난 1월 23일 현재 사망자수는 785명으로 늘어났으며 400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총해자수는 190만명에 달한다.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와 빅토리아주에서 큰물피해가 계속되고있다.

큰물로 지난 1월 21일 현재 3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100만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경제손실액은 200억\$ (오스트랄리아달러)에 달한다.

본사기자

인형들감고에 확대

인형들감고에 확대 (HINI) 형틀감고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1월 22일 이 나라 보건성은 인형들감고에 걸려 앓고있던 4살 난 어린이가 또 목숨을 잃음으로써 경조하며 사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측은 십자표식은 총의 조종장치의 미치지 않는다고 아인보살하였다.

두더지 비호 해

브라질의 리오 데 제네이루에서 최근 두더지비호해가 확대되고있다. 두더지비호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로 지난 1월 23일 현재 사망자수는 785명으로 늘어났으며 400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총해자수는 190만명에 달한다.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와 빅토리아주에서 큰물피해가 계속되고있다.

큰물로 지난 1월 21일 현재 3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100만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경제손실액은 200억\$ (오스트랄리아달러)에 달한다.

본사기자